

韓國 書院研究의 現況과 課題

설 석 규*

1 書院의 建立과 推移

조선시대 書院은 유학의 진흥에 공이 높은 先賢을 제사하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成均館이나 鄉校의 기능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서원은 왕으로부터 賜額을 받아 책이나 농토를 국가에서 지급받는 준공립 서원을 제외하고는 향촌 사림의 공론 내지는 후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라는 점이 달랐다. 서원은 향교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 차이가 없지만, 孔子를 비롯한 중국 및 한국의 유현의 위패를 봉안한 大成殿 및 東·西廡 대신 향촌사회와 연고를 가지면서 추송의 대상이 된 선현의 위패를 봉안한 祠廟가 있는 것만 다를 뿐이었다. 사림의 존송을 받는 인물의 사묘만 두고 제사의 기능만 하는 경우 祠宇라 하여, 사묘와 함께 講堂과 東·西齋의 기숙사를 갖추어 교육을 겸하던 서원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나 사우 역시 향촌교화의 부수적 교육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인재양성에 나서지 않을 뿐 서원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 서원의 건립은 성균관과 향교를 모태로 중앙 또는 관학 일변도를 지향하던 교육관행에서 벗어나, 향촌 내부의 독자적 학문체계를 구축하여 사림주도의 자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특히 서원이 제향대상을 중국인이 포함된 성균관·향교와는 달리 한국의 선현을 선택한 데다 학문적으로 연고가 있는 향촌출신 인물을 선정한 점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조선의 현실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문체계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서원의 건립은 주로 향촌에 재지적 기반을 확보하며 독자적 세계관의 정립을 추구하던 향촌사림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서원의 효시는 豊基郡守 周世鵬이 건립한 白雲洞書院이다. 이 서원의 설립은 조선시대 향촌을 무대로 재지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던 사림들이 서원건립 운동을 전개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주세붕이 서원을 건립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祠堂을 세워 德을 숭상하고 講堂을 건립해 학문을 돈독히 하려는 목적에 있었지만, 일차적으로는 鄉校教育의 질적 수준 저하로 인한 향촌사림으로부터의 외면이 큰 작용을 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향촌사림들의 사교체계가 중앙의 일방적인 관학체계의 예속에서 벗어나, 향촌

*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장

내부의 독자적 학문체계를 구축하여 자치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李滉이 서원건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도 그러한 상황과 맥이 닿아 있었다.

이황이 서원의 건립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명종대 勳戚政權의 파행적 국가운영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명분을 근간으로 실천을 우선하는 도학적 풍조의 확산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書院論이 科學를 목표로 한 治人보다는 修己를 지향하는 ‘講明道學’ 과, 모범이 될 만한 先賢의 업적을 실감하게 하는 ‘尊崇道學’ 으로 압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러한 이황의 서원론은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공감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宣祖代부터 향촌사람들이 서원건립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조선시대 선조대는 정치·사회·사상적인 전환기에 해당한다. 명종대까지 정국을 주도하던 外戚 중심의 勳戚政權이 무너지는 대신 도덕과 명분에 입각한 도학정치를 지향하는 士林이 주축이 된 士林政權이 확립되었다. 이를 위해 사림세력은 우선 특정집단의 권력독점을 초래한 官僚政治 대신 정치세력의 상호 견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朋黨政治의 원리를 수용했다. 또한 봉당정치는 사림의 公論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지향하는 公論政治를 정착시킴으로써, 言官뿐만 아니라 관직이 없는 재야사림의 上疏를 통한 정치참여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같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 사림세력은 學派를 매개로 분열하여 각각의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한편, 成均館 및 鄕村의 재야사림과도 결속을 강화해 나갔다. 향촌에 특정 학파 내지 정치세력과 연관된 書院·祠宇가 활발하게 건립되는 것도 그러한 상황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先賢의 奉祀기능과 함께 教育기능을 갖춘 서원은 제향자의 학풍을 계승하는 인재의 양성을 통해 그들 세력의 정치 및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는데 더없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향촌사림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들의 독자적 學脈을 형성하는 매개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촌사림을 포함한 사림세력은 退溪學派·南冥學派·栗谷學派 등으로 분화한 가운데, 그것을 모태로 南人·北人·西人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공론대결을 통해 상호 견제 및 대립관계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함께 그들은 학파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공론적 기반의 확대를 위해 書院·祠宇의 建立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

그 결과 선조대만 해도 전국에 85개소의 서원과 사우가 건립되었으며, 특히 정권교체를 골간으로 하는 換局이 반복되면서 봉당간의 역학관계가 최고조에 달하는 숙종대에는 무려 340개소가 건립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興宣大院君이 1868년(고종 5) 47개소의 사액서원만을 남기고 毀撤하도록 하는 정비에 나설 때까지 전국에 9백 개소를 상회하는 서원과 사우가 번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현상이 결과적으로 조선시대 서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조선시대 교육이 한국 선현의 정신을 모범으로 삼는 방향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향촌사림의 서원·사우를 매개로 한 학문 및 사회적 결속과 더불어 그들의 정치적 활동의 양상을 극명하게

반영하는 사례이기도 했다.

〈표〉 조선시대 書院·祠宇 건립추세

	慶尙		忠淸		全羅		京畿		黃海		咸鏡		江原		平安		計		
	院	宇	院	宇	院	宇	院	宇	院	宇	院	宇	院	宇	院	宇	院	宇	
明宗	12	5	1	2	3		1	2	1		1		1		2	4	22	13	
宣祖	25	3	7	3	13	9	6		8	1	1	2			3	4	63	22	
光海君	12	3	6	1	5	4	2		1		1	1	2				29	9	
仁祖	11	9	5	1	6	7	2	2		1	1	1	2	2	1	2	28	25	
孝宗	10	2	2	1	5	3	4		3			1	2	3	1		27	10	
顯宗	14	6	8	3	8	4	5	2	2		5	3	4		4	1	46	23	
肅宗	76	61	27	25	27	40	19	8	5	8	2	9	4	8	6	15	166	174	
景宗	2	5	3	2	3	4				1		2		2		4	8	20	
英祖	6	46	1	14	4	22	1	7	1	16	2	9	2	14	1	17	18	145	
正祖		2			2	1		3										2	6
純祖以後							1					1						1	1
未詳	5	9		6	1	14		3	1	3		1		7			7	43	
計	173	151	60	58	77	108	41	28	22	30	13	30	13	40	18	47	417	492	

* 鄭萬祚, 「韓國 書院의 歷史」 『韓國學論叢』 29, 2007에서 轉載함.

2 書院研究 動向

조선시대의 서원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의 정책수립을 위한 조선사회 구조의 파악이란 측면에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식민사학자들은 한국 촌락의 실태조사 일환으로 전국 서원·사우의 분포조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조선의 교육제도의 하나로서 서원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관심의 저변에는 조선시대 문화가 중국문화의 고식적 답습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하는 他律性論이나 停滯性論의 시각이 깔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亡國의 요인을 조선왕조 지배세력인 兩班의 타성적 자세로 돌리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었다.

여기에 黨派性論을 근거로 한 黨爭亡國論까지 가세함에 따라 당쟁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던 서원이 집중적인 검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향촌사림의 사실상의 정신적 지주이자 교육 및 정치·사회적 활동의 기반이었던 서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서원이 空理空談만 일삼는 당쟁의 소굴 또는 양반이 일반 백성을 토색질하는 본거지, 국가경제의 태반을 농단하는 폐단을 일으킨 근거지 등의 평가로 일관하며 학교제도의 停滯性을 보여주는 표본으로까지 규정되는 것도 그러한 영향에 따른 것이었다.

이같이 조선시대 서원에 대한 평가의 기류가 일관된 부정적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역사성을 부여하려는 일련의 노력도 없지는 않았다. 柳洪烈이 16세기 정치·사회 정세와 관련하여 설립의 배경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면서, 서원을 ‘과거 반도사상 신국면을 전개시킨 시대적 압력을 양성함에 힘을 부여한 민간교육의 기구’라 평가하며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여기에다 石井壽夫는 조선시대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理學을 들면서, 향촌을 배경으로 하는 新進儒士들이 이학을 향촌에 폭넓게 보급하는데 서원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서원과 더불어 양반·당쟁을 조선 망국의 요인으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일과성의 주장에 그치고 말았다.

서원연구의 부진한 상황은 식민사학의 영향이 잔존하고 있던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다만 교육사 분야에서 개설적인 언급과 더불어 한 두 편의 논문이 나타나지만, 그 수준에 있어서나 시각에 있어서 편향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전히 서원은 ‘양반이데올로기의 遊藝道具’로서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원의 성격을 파악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한 일관된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원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평가는 1960년대 후반 경제사 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극복하기 위한 ‘內在的 發展論’이 대두되는데 이어, 1970년대 전반 정치·사회사 분야에서 黨派性論 극복을 염두에 둔 ‘朋黨政治論’이 제기되면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비롯해 정치·사회적 역할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곧 서원은 조선왕조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의 확산과 더불어 인재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과, 향촌사람의 제사와 교육을 매개로 한 사회적 결속을 주도하면서 봉당의 역학관계와 관련한 사람의 公論형성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같은 성과에 의해 서원은 비로소 일관된 부정적이고도 반성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대상으로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연구는 사실상 자료의 다각적인 활용에 있어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단지 實錄 등 연대기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서원의 역사성에 대한 왜곡된 부분을 극복하는데 주력하고 있던 경향에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서원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이 시기 『書院誌叢書』를 비롯해, 『列邑院宇事蹟』·『書院階錄』·『俎頭錄』·『東國院宇錄』·『書院可考』 등 주로 奎章閣에 소장된 서원관련 자료들이 잇달아 공개되는 것은 제한된 자료 활용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한 서원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보급에 따라 서원연구는 1980년대 이후 연구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연구영역의 심화 등 양적 질적인 면에 있어 장족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 볼 때 80년대는 50여 편, 그리고 90년대에는 7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개별 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자료들도 정리되었는데,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玉山·道東書院 자료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古文書集成』간행사업의 일환으로 屏山·瀨溪·德川·龍淵書院 자료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紹修·仁山·道南·臨臯·易東·分江·鷗江書院의 자료를 정리한 것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 같은 서원소장 자료의 폭넓은 발굴은 서원연구의 양적 팽창을 촉진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례연구를 통한 성과를 집적시킴으로써 질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鄉案·鄉約·鄉會·鄉權 및 鄉戰 등 향촌내부의 조직과 동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향촌사회의 핵심적인 조직으로서 서원에 대한 연구도 심화되는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물론 향촌사회사 연구와 관련하여 서원의 존재가 부각된 것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따른 것이기는 했지만,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따른 사회변혁의 과정에서 제기된 피지배자를 주축으로 한 기층사회의 동향을 주목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현상과도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서원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긍정 일반도에서 벗어나 부정적 영향까지 포괄하는 보다 객관적인 면모를 갖추는 길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같은 종합적인 평가도 개별 서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보장하는 경제적 기반 등에 대한 다양하고도 심화된 연구가 축적된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각종 고문서류를 소장하고 있는 서원에 대한 사례연구가 활발하게 발표되는 현상도 그러한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서원에 출입하는 院生이나 서원운영의 주체인 院長·有司·掌議 등 院任의 분석을 통한 서원의 사회적 기반을 비롯해, 서원에 소속된 노비나 토지 관련 고문서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한 경제적 기반, 通文·上疏 및 疏行日記類 자료의 폭넓은 발굴을 통한 정치적 기반 등에 대한 성과가 속속 나타나게 되었다. 서원에 祭享된 인물들의 위패의 순서를 두고 벌어진 位次是非를 비롯해, 서원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향촌사림 내부 또는 기득권을 확보한 기존의 舊鄉과 신향사림으로 성장한 新鄉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포괄하는 鄉戰이 적극적인 분석의 대상이 된 것도 그러한 상황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이같이 한국의 서원연구는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자료의 발굴을 매개로 하여 질적인 심화와 함께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한 추세는 21세기 들어와서도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서원의 사례연구를 계속해온 李樹煥과 서원의 구조적 연구를 추구하고 있는 鄭萬祚, 鄉校의 종합적 연구를 진행한 다음 서원연구에 뛰어난 尹熙勉 등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도 전반적으로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에 따른 지방화가 촉진되어 가는 양상에

발맞추어 地方(地域)學의 정립을 염두에 둔 사례연구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 특히 한국국학진흥원이 2007년 “한국성리학과 지방학” 제3차 한국학 학술대회를 한국서원학회,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京畿·嶺南·湖西·湖南지역 서원의 성격을 비교하는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성과 정치적 성격’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도 그러한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 하겠다. 여기에는 지역적 성격을 반영하는 전통문화의 심화된 분석을 통해 지역문화의 차별적 독자성 부각과 더불어 활성화와 실용화를 위한 목적이 전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방화의 내실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3 書院研究 課題

한국 서원연구의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원에 소장된 단편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한 사례연구의 성행은 오히려 조선시대 서원이 正體性을 확보하는데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곧 특수성이 보편성으로 간주되는가 하면, 통문 및 상소를 매개로 한 서원간 유기적 관계가 무시되거나, 특정시기 서원의 존재양상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양상의 추적을 소홀히 하는 한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당쟁과 서원과의 관련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기구로서의 서원의 위상과 향촌조직에서 차지하는 서원의 위치가 보다 선명하게 정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논리의 설정이나 사실이해와 설명에 오해가 없도록 사료에 대한 정밀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음미해볼 부분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의 서원연구는 전반적으로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서원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 한·중·일 서원을 상호 비교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고, 문화산업과 연계된 서원의 콘텐츠화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현상은 한국서원의 正體性에 대한 확신이 뒷받침된 결과라 하겠다. 그럼에도 각 분야별 연구 성과에 있어 한계가 노출되거나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분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 한국의 서원연구를 분야별로 나누어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먼저 서원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자. 서원의 일차적 기능이 선현의 祭祀와 講學(藏修)이라는 점 때문에 그것의 교육기능은 일찍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특정 인물의 교육관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성과가 적지 않게 축적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서원교육이 향교교육과 어떠한 차별적 경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조선시대 향촌의 양대 교육기관인 서원과 향교가 교육대상이나 과정에 있어 경쟁적 관계에 있었는지 역할분담을

통한 유기적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원·향교가 敎授나 訓導에 의한 타율적인 講學뿐만 아니라 내면적 수양과 실천을 지향하는 자율적인 藏修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강학에 치중된 경향에서 벗어나 장수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곧 강학은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인 科擧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데 비해 장수는 道學的 자세의 심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향교와 서원의 역할분담은 충분히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향촌사람들에게 향교보다는 서원이 중시되었고, 관직진출보다는 處士型 士林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도 그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둘째, 서원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검토해 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원의 정치적 역할은 봉당정치론의 제기과 더불어 적극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서원연구가 제향자의 黨色을 염두에 둔 가운데 향촌사람의 정치적 동향과 성격을 추적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과들은 서원의 현상적 측면을 분석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서원을 무대로 결속한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정치철학이나 현안해결의 방식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소홀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당파적 성격을 갖는 서원을 출입하는 향촌사람이 지향하는 정치철학의 실체에 대한 파악이 배제될 경우, 서원은 정치세력의 공론적 기반으로 봉당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는 부수적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소지를 안게 된다. 조선시대 봉당에 예속된 서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봉당과 서원은 정치철학을 공유하면서 정치적으로 유기적 관계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봉당과 서원이 공감한 정치철학이 갖는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봉당의 역할관계의 추적에 주로 치중되어 있는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자, 서원이 갖는 정치적 獨自性和 整合性を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서원의 사회·경제적 기반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 보자. 서원연구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실증적이고 활발한 성과를 축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서원의 주된 무대가 향촌사회라는 사실이 작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고문서 자료가 광범위하게 활용된 때문이기도 했다. 사례연구도 종합화를 염두에 두지 않을 경우 고립 분산적인 경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자칫 그것은 서원의 배타적 특수성을 강조하는데만 활용될 뿐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례연구에 앞서 자료의 분석을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사의 경우 1980년대 이후 ‘國家-守令-士族’의 향촌지배 구조를 파악하는 實證史學과, 吏鄕層의 성장을 전제로 ‘國家-守令-吏鄕’의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民衆史學의 시각이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지면서 그러한 요구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향촌의 주도세력이 官權과 일정한 길항관계를 유지하며 독자적 활동기반을 확보한 士族인가 아니면

사족의 견제를 위해 관권과 긴밀하게 연계된 吏族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혼선을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도세력의 분석을 통한 서원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사정은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추적하는데 있어서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서원의 경리장부인 『傳掌記』 등 경제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서원경제의 실상과 변모양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수입의 양상을 추적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비중을 둔 나머지 지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데다 서원간 또는 수입·지출의 상호 비교를 위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다수의 서원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원의 건립에서부터 시작해 궤철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동향과 변화양상 등 서원의 전모를 파악한 성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성과가 서원의 건립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를 부여하거나 단편적인 자료를 활용해 특정 시기의 양상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서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가피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연대기 자료와 서원소장 자료를 연계하여 구조적으로 활용하는데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원의 건립에서부터 운영 실태에 대한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서원연구가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세인 작금의 연구경향에서 볼 때 교육을 비롯한 정치·사회·경제적 양상을 종합한 서원의 전반적인 동향파악은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여기에 제향자 및 서원출신 인물들의 학문성격을 비롯한 현실현식과 대응자세의 변화양상을 단계적으로 추적하는 사상사적 성과까지 추가할 수 있다면 한국서원의 역사적 성격과 위상을 종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토대가 갖추어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